

News

S&P,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코로나發 경기침체 일시적"

연합뉴스

S&P는 21일 한국 장기 국가 신용등급을 'AA', 단기 국가 신용등급을 'A-1+'로 유지...GDP는 2020년 3만달러에서 2023년 3만8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 "올해 GDP 성장률 -1.5% 역성장 후 내년 5% 강한 반등"...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2.5%로 확대...중장기적으론 흑자 유지 전망"

코로나 금융지원 면책 걱정마라... 금융권에 보낸 은성수의 편지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권 임직원들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 "일관된 실천으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사이에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고 개편된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

코로나19에 카드론 8천800억 ↑, 카뱅 신용대출 9천400억 ↑

연합뉴스

신한 · 삼성 · KB · 현대 · 롯데 · 우리 · 하나카드 등 7개사의 카드론 취급액이 지난달 4조3천24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6%(8천825억원)나 늘어... 카드사 관계자, "주식 폭락 이후 카드론 대출이 갑자기 뛰는 경향이 있어 3월에 일부 카드론 대출이 주식투자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韓美 통화스와프 4차분 21.19억달러 공급

디지털타임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에 따른 4차 자금 공급 총 40억 달러 중 21억1900만 달러 공급 확정 이번엔 낙찰된 달러 자금은 결제일인 오는 23일에 실제 공급될 예정

작년 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 809억원... 208% 급증

연합뉴스

전년 보다 207.9%(4천720만달러) 늘어난 실적으로, 2018년 흑자 전환에 이어 흑자폭이 커져... 부문별로 보면 보험업 순이익이 7천190만달러로 219.6% 급증 생명보험사의 아시아지역 손익 개선 영향... 손해보험사도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이 전년보다 줄어 손해액이 감소한 효과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완화... '30% 룰' 급물살 전망

컨슈머타임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30% 룰'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 한화생명과 푸본현대생명 등은 해외 투자 비중이 30%에 임박... 농협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도 20%대를 넘어서...

국내투자자 해외파생상품 거래 급증... 코로나19로 변동성 확대

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 올해 1분기 국내 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량은 4천206만계약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9% 늘어... 전 분기보다는 82.8%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증시와 원유, 환율, 원자재 등 기초자산이 되는 상품의 가격 변동성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

마이너스 유가 인식못해 증권사 전산장애... 투자자손실 우려

연합뉴스

키움증권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서 HTS에서 관련 선물 종목인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의 거래가 중단... 키움증권 관계자, "투자자 피해 사항을 확인해 규정대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 다른 증권사들의 경우 만기 전날 5월물을 청산해 유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